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과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가입자의 약 87%(부분연금 포함)가 연금을 선호함에도 실제 55세 이상 퇴직자의 약 93%가 오히려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퍼즐(annuity puzzle) 현상¹⁾으로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미흡함. 반면 유럽복지국가인 네덜란드는 100%, 스위스는 80%가 연금으로 수령하고, 호주 등은 부분연금형태인 소득인출형연금을 통해 퇴직급부를 연금으로 전환함. 이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높은 연금선호가 연금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시금, 연금, 소득인출형연금 등으로 급부지급방식 다양화,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가미형 연금상품 개발, 적립금 중도인출 범위확대,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가 요구됨.

■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대로 인해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됨.

● 본고는 퇴직연금가입자 대상으로 퇴직급부 수령방식에 대한 선호도실태와 실제 수령실태를 OECD 국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논의함.

■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²⁾,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급부를 연금으로 수령하길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가입자의 58.5%는 연금, 28.5%는 소득인출형연금(부분연금)³⁾으로 수령하길 원해 연금 형태 선호도는 87.0%에 이른 반면, 일시금 선호도는 13.0%에 불과함(〈그림 1〉 참조).
 -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연금을 선호하는 가입자(N=52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기연금(45.8%)보다 장수리스크 헤지 기능이 있는 종신연금(54.2%)을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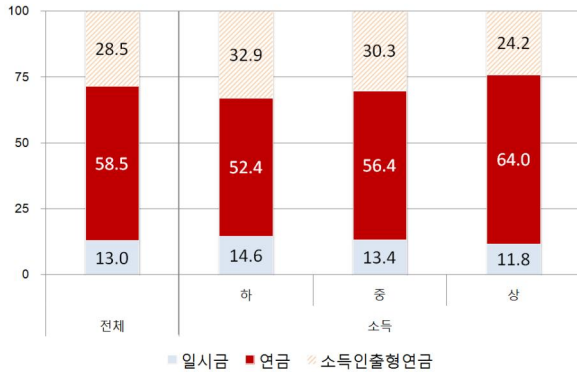
1) 연금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현실은 연금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함.

2) 보험연구원이 2016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3) 부분연금은 일부는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소득인출형상품의 성격과 유사함.

〈그림 1〉 퇴직금부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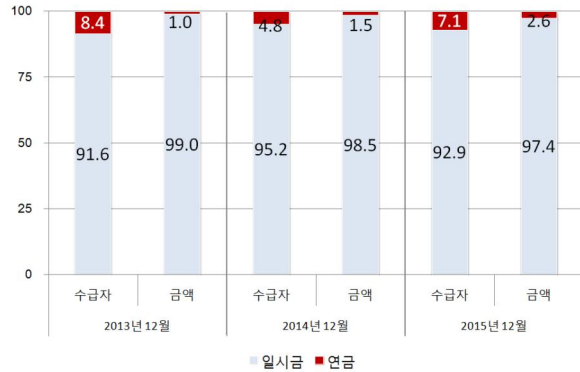
(단위: %)



주: 소득하(200만 원 이하), 소득중(201~400만 원 이하), 소득상(401만 원 이상).
자료: 보험연구원(2016).

〈그림 2〉 퇴직금부의 수령형태

(단위: %)



주: 2016년부터 연금수급비용 산출 시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 기준으로 변경.
자료: 금융감독원(2016).

■ 한편, 퇴직자의 대부분은 설문조사와 상반되는 결과인 일시금으로 수령(연금퍼즐 현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⁴⁾

- 2015년 12월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의 약 93%가 퇴직금부를 일시금(lump sum)으로 수령하고 있어 퇴직금부의 연금으로 전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그림 2〉 참조).⁵⁾
-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한 목돈마련(53.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연금상품 부족(17.9%), 낮은 연금액(15.4%) 순인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인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종신연금의 수령비중이 높고, 호주의 경우 소득인출형연금 활용을 통해 퇴직금부의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⁶⁾

- 네덜란드는 은퇴자의 100%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80%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매우 높은 수준임(〈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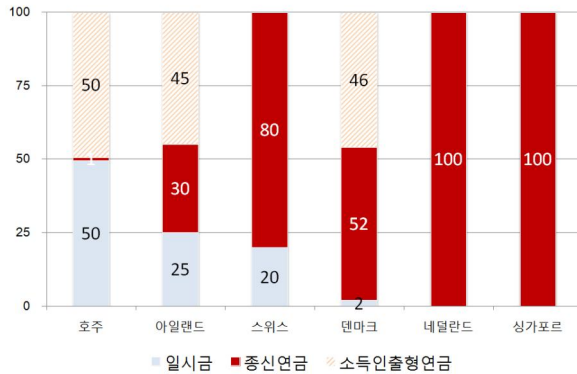
4)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실제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두드러짐. 연금퍼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유산상속동기, 다른 노후재산의 존재, 의료비용 지출, 교육비, 자녀결혼 등으로 인식됨(Inkermann et al, 2011; Lockwood 2012; Mitchell 2008 등).

5) 2016년 9월 말 현재 계좌기준으로는 일시금수령 비중이 98.4%, 계좌적립금기준으로 일시금수령 비중이 83.1%임.

6)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보완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예: 미국)는 일시금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대체기능을 하는 국가(예: 덴마크)는 연금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호주, 아일랜드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수령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부분연금형태인 소득인출형연금을 통해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표 1〉 참조).

〈그림 3〉 OECD 주요국의 퇴직금부 수령형태(%)



자료: Oxera(2015).

〈표 1〉 OECD 주요국의 퇴직금부 관련 규제

국가	종신연금	소득인출형연금	일시금
호주	허용	허용	허용
아일랜드	허용	허용	25% 비과세
스위스	디폴트옵션	금지	허용
덴마크	거치연금	금액제한	허용
네덜란드	의무화	금지	금지
싱가포르	의무화	금지	금지

자료: Oxera(2015).

- 따라서 국내 연금퍼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높은 연금선호가 연금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소득인출형연금을 허용하여 급부방식⁷⁾을 보다 다양화하고 이들 방식(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연금) 간의 상호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가미형 연금상품 제공을 통해 연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인출범위⁸⁾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방지하고, 일시금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⁹⁾이 보다 부여되도록 개선이 요구됨. **kiri**

7)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금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8) 현재 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비 등에 한해서만 중도인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9) 퇴직금부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불과함.